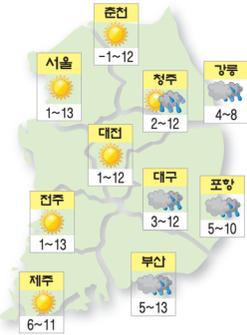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맑음	06:48	달림	02:21
맑음	18:37	달림	11:40



광주	맑음	2~13
목포	맑음	2~9
여수	구름	4~13
순천	구름	2~13
구례	구름	1~13
광주	맑음	0~11
완도	맑음	2~13
목신도	맑음	4~10
진남	고흐	0~14
진도	맑음	3~9

목포	밀물(고)	07:45 / 19:33
	썰물(저)	13:22 / --:--
여수	밀물(고)	02:28 / 14:16
	썰물(저)	09:32 / 20:45

교량 이름표 훔친 40대 검거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교량 이름표 800여개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검거돼. 장흥경찰은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254개 교량에 부착된 '교명판' 8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아. 그는 CCTV가 없는 방향의 교명판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훔친 교명판은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산정. 정충=정명수 기자 jms05311@

보복 운전으로 운전자 위협 '도로 위 시한폭탄'

최근 4년간 광주·전남 1559건 발생...사고 잇따라 전문가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피하는 게 상책"

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겪었다. 큰 도로로 합류하려던 순간 과속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접근했고, 차선을 바꾸지 않은 채 상향등을 반복 점멸하며 압박했다. 이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자 해당 차량은 앞질러 간 뒤 두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 운전을 했다. 이씨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이 매년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난폭운전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신고된 보복운전은 광주 450건, 전남 5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21년 147건에서 2022년 8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91건을 기록했다. 전남은 2021년 153건, 2022년

130건, 2023년 10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13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실제로 보복운전을 저지른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8일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과정에서 경적과 상향등을 켜 운전자에게 화가 나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난폭운전 적발도 총 580건(광주 238건·전남 342건)에 달했다. 광주는 2021년 50건, 2022년 58건,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3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남은 2021년 93건,

2022년 69건, 2023년 126건, 2024년 54건으로 조사됐다.

나주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려 한 1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해 2월 난폭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붙잡았다.

A군은 나주시 대호동에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다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시비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순제성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

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며 "위험 상황에서는 현장을 벗어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대응을 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자제와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난폭운전은 급제동·급가속·갇은 끼어 들기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로 형법상 특수협박 등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순제성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등굣길 어린이안전 캠페인 새학기를 맞아 11일 광주 서구 유덕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초등학교 주변 합동 안전점검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새마을 교통봉사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자원단체 회원들이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쓰레기 배출 '뚝'·재활용품 수거 '쑥'

6년간 쓰레기 10% 감소...자원순환 안착 '친환경자원순환센터·동구라미 온' 효과

광주 동구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청소행정 정책이 자원순환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6년간 통계를 분석해보니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활용품 회수량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은 2019년 1만6030t에서 지난해 1만4379t으로 10.3%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배출량도 매년 2~3%씩 감소해 2019년 대비 17.8% 줄었다. 인구·세대 수 증가에도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쓰레기 감량 정책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2019년 1만283t에서 2025년 약 9.6%가 줄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대비 17.1% 감소했고, 세대당 배출량도 23.3% 줄었다. 이는 동구가 공동·단독주택에 음식물 감량기와 종량기(RFD)를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을 추진한 효과로 풀이된다.

재활용 부문에서는 재활용품 회수량이

2019년 1989t에서 2025년 3870t으로 110.4% 늘었고, 1인당 회수량 역시 92.9% 증가했다. 동구는 캔·페트병 회수기 45대를 설치·운영해 2021년 95만개에서 2025년 276만개까지 회수량을 끌어올렸다.

2024년 문을 연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동구라미 환경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151회를 운영해 4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 집수리·목공 등 생활밀착형 수리수선 강좌를 비롯해 주민참여 워크숍, 리더 양성, 기관 간 협력 포럼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일상 속 교육·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동구가 자체 개발한 자원순환 플랫폼(앱) '동구라미 온'은 청소차 도착 정보 제공, 신고·참여 포인트 지급 등 주민 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2025년 7월 환경부 탄소배출기법 선정으로 향후 탄소포인트와의 연계를 앞두고 있다.



환경교실 프로그램

이러한 성과는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40여개 지자체와 공공·민간 기관이 동구의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 환경부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 활용 최우수' 등 각종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전국을 선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광주 롯데호텔(구 라마다상무호텔)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l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이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영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